

지리산 남악제(南岳祭) 제례복식(祭禮服飾)에 관한 제언

이 영 주 · 이 상 은**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전통복식디자인전공 시간강사 ·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전통복식디자인전공 명예교수**

A Study about Historical Research on Jebok(ritual robes) of Jirisan Namakje

Yeong-Ju Lee · Sang-Eun Lee**

Lecturer Dept. of Traditional Costume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Konkuk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 Dept. of Traditional Costume Design, Graduate School of Design, Konkuk University**

(2014. 8. 6. 접수; 2014. 10. 1. 수정; 2014. 10. 6. 채택)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historical research the Jebok(ritual robes) of Jirisan Namakje.

Joseon Dynasty established Five Manners as a country-ruling policy on the basis of Confucianism, the religious clothes-wearing method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Sejong Silok Five Manners and the ritual robes system of all the government officials has been handed down to the end of Joseon Dynasty.

The ritual robes of all the government officials was worn at the timed of the religious ceremony included ritual manners, and ritual robes are composed of Yanggwan, Ui, Sang, Jungdan, Peasul, Hwan, Wu(a cord, a leather belt, a belt, jade, a mace, Bangsimgokryeong, Mal, Ri, etc., and the rank was classified by the number of the veritical line of Ynaggwan, a leather belt, Hwan, Wu and jade and typeof a mace.

『Jongmyouigwe』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described exactly the Uicha and textile of the ritual robes at that time, the textile Ui used Heukju as same as 『Jegiakgidogamuigwe』, and jade was used only in case of the first rank ritual official and other government officials did not wear jase. Also, it was revealed that all officials used a wooden mace, and in case of Husu, the first rank ritual official used Jikseong and other official used a picture.

Key Words: Jirisan Namakje(지리산 남악제), Jongmyouigwe(종묘의궤), Jebok(제복), Jobok(조복)

I. 서 론

지리산 남악제는 전라남도 구례군에서 해마다 곡우(穀雨)인 4월 20일 무렵에 화엄사 시설지구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문화예술 축제로 이 축제의 대표적인 행사는 남악사(南岳祠)에서 올리는 남악 제례이다. 이 제례는 지리산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의례로 그 역사적인 기원을 지리산 산신제(山神祭)에 두고 있다.

지난해인 2013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제 69회 지리산 남악제가 개최되었고, 같은 해인 11월 22일에는 남악제를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제정하고 더 나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첫 학술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 학술 세미나에서 조선시대인 1677년(숙종 3년)에 남악사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일신한 숙

Corresponding author ; Sang-Eun Lee

Fax. +82-2-450-3304

E-mail : yjgood@hanmail.net

종대(肅宗代)로 남악제례를 복원하기로 합의가 되어 본 연구는 숙종대의 제복(祭服)을 고찰해보고 남악제의 제례복식에 관해 제안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로 숙종대의 문무관원들이 제례 시에 착용했던 제복의 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숙종 32년(1706)에 편찬된 『종묘의궤(宗廟儀軌)』 제 1책의 제복 도설(圖說) 중 문무관관복(文武官冠服)을 살펴본다.

둘째, 유물 연구로 정온(鄭蘊, 1569~1641)의 제복과 조복 유물, 밀창군(密昌君) 이직(李穡, 1677~1746)의 조복 차림 초상화와 그의 조복 출토 유물 고찰을 통해 숙종대의 제복을 고증하도록 한다.

II. 지리산 남악제에 관한 역사적 고찰

지리산 남악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남악제의 소재이며 역사적 연원이라 할 수 있는 지리산 산신제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 나라의 왕조에서는 수도를 기준으로 각 방면을 대표하는 악(嶽)·해(海)·진(鎭)·독(瀆)과 명산(名山)·대천(大川)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를 나라의 산천제(山川祭)라 하며, 동서남북의 각 방면을 대표하는 악해진독의 제사를 중사(中祀)로, 여러 명산대천의 제사를 소사(小祀)로 하였다.

지리산은 한국의 신앙적 종산이라 할 수 있는 삼신산(三神山) 중의 하나였고 신라의 남악(南岳)으로 중사에 있었으며 고려시대에도 지리산은 남부 지방을 대표하는 큰 산으로 국가 제사를 올렸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이념에 따라서 국가제사체계를 정비하였는데, 조선 초인 1456년(세조 2년)에 지리산을 조선왕조의 남악으로 다시 정하면서 남악사의 위치를 노고단에서 더 아래쪽인 갈피봉 아래 구례 광의면 온당리 당동으로 이전하였고, 그 후 1677년(숙종 3년)에 남원부사

의 전격적인 지원으로 남악사의 규모가 대대적으로 일신되면서 구한 말까지 오랜 전통을 유지하여 왔다.

이후 대한제국에 들어서는 황제국의 체제에 맞추어 오악, 오진, 사해, 사독의 제사체계를 새로이 정하였는데 이 때 지리산은 대한제국의 남악으로 다시 편성되었다(김아네스, 2013).

이렇듯 신라의 중사 오악(五嶽) 가운데 유일하게 지리산만이 조선과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중사로 국행제가 계속해서 이어진 까닭은 지리산이 한반도의 남쪽 경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산악으로 자연지리적인 장엄함과 함께 지리산신의 영험이 크고 공덕이 높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제가 국권을 침탈하면서 고종을 폐위시킨 뒤 오악의 제사를 비롯한 국가제사를 폐지하였고, 1908년(순종 2년)에는 산천악독단에 대한 나라의 산천제와 국제신사(國際神祠)의 기능을 정지함으로 더 이상 국가적 차원의 산신제는 봉행되지 않았다.

광복 이후 화엄사 일주문 앞에서 제사를 올리는 것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오던 지리산 산신제는 1969년에 화엄사 지장암 옆에 10여 평 규모의 남악사를 다시 건립하고 매년 곡우절에 지리산 일대의 영약으로 이름난 거자약수를 봉제하는 약수제로 지내게 되었다(구례군, 구례 문화원, 2013).

그리고 2000년부터는 지리산 산신제의 문화유산을 전승 발전시키고 온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하여 화합과 단결을 다짐하는 참 뜻을 계승하기 위하여 조선과 대한제국의 유교식 산신제를 재현하고, 명칭도 ‘지리산 남악제’로 개칭하면서 현재까지 관광객과 군민이 함께하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축제의 한마당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III. 숙종대 제복에 관한 고찰

1. 『종묘의궤(宗廟儀軌)』를 통한 숙종대 제복에 관한 고찰

조선시대에 왕과 왕위 계승자, 대한제국의 황

제와 황위 계승자가 국가의 큰 제사를 올릴 때에는 면복(冕服)을 착용하였고 이외의 왕실 남성들과 일반관리들이 국가의 제사를 지낼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였는데, 제복은 관(祭冠), 의(衣), 중단(中單), 상(裳), 대대(大帶), 수(綬), 폐슬(蔽膝), 패옥(佩玉), 혁대(革帶), 홀(笏), 방심곡령(方心曲領), 말(襪), 이(履)로 일습을 이룬다(국립고궁박물관, 2013).

본 장에서는 숙종대의 제복의 제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문헌 자료로, 숙종 32년(1706)에 편찬된 『종묘의궤』의 문무관관복 도설을 통해 문무관원의 제복에 관해 알아보고 『종묘의궤』 이외의 예서(禮書)와 의궤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 고찰해보고자 한다.

『종묘의궤』는 종묘제도와 의식절차, 관련 행사와 중축 과정 등을 그림과 함께 기록한 책으로 인조대 이후 모두 14차례에 걸쳐 편찬되었는데, 숙종 32년(1706)에 편찬된 『종묘의궤』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와 각 관청의 등록(謄錄) 및 개인의 문집 등에서 종묘와 관련 있는 내용을 뽑아 분류·정리하여 도설과 함께 기록한 것으로, 총 4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책에는 도설을, 2~4 책에는 종묘와 관련된 글들을 수록하였다(한국고전번역원, 2009).

제 1책의 제복 도설에는 전하의 면복, 왕세자의 면복, 문무관원의 관복, 공인의 관복 도설이 실려 있는데 그 중 본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문무관원의 관복은 『국조오례의』의 문무관복도를 충실히 따르면서 편찬 당시의 제복 착용자의 신분제에 따라 대대, 패, 수를 구분하였고 의, 상, 중단, 방심곡령, 폐슬, 말, 이 등은 당시의 사용 직물까지 기록하고 있어 숙종대 제복의 제도와 의차(衣次)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최영선, 2004).

문무관원의 관복 도설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한국고전번역원, 2009).

1) 홀(笏)

홀은 제복 차림을 하고 제례에 참석할 때 손에 드는 장방형의 수판(手版)으로 길이는 한 자

가량, 폭은 두 치 정도로 알팍하고 길쭉하며 손으로 잡는 아랫부분을 비단으로 만든 싸개(감이 甘伊)로 감쌌다(김영숙, 1998).

태조 원년(1392)에 품계별 관복의 복식을 상정하는데 1품에서 4품까지는 상홀(象牙), 5품 이하의 목홀(木笏)로 규정하였고, 태종 16년(1416)과 『세종실록 오례(世宗實錄 五禮)』에서 제정한 조관의 관복 제도 역시 4품 이상은 상홀, 5품 이하의 괴목(槐木)으로 제작한 목홀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경국대전』과 『국조오례의』, 『대한예전』에 이르기까지 홀의 제도는 동일하게 의례화되어 국말(國末)까지 변함이 없이 제복과 조복(朝服)에 통용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인 인조 2년(1624)에 편찬된 『제기약기도감의궤』와 『종묘의궤』에서는 품계에 관계없이 모든 제관(祭官)이 목홀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진왜란 이후의 빈곤한 국가 재정과 국가 차원의 사치 금지령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2) 관(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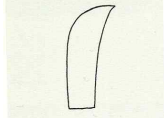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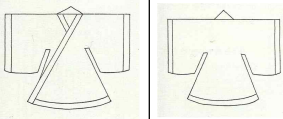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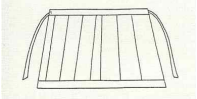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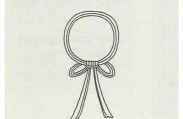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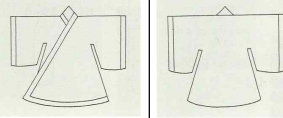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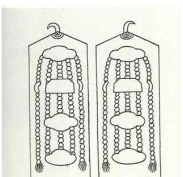
제의(祭儀) 때 백관이 쓰는 관으로 조복에 쓰는 양관은 니금(泥金)을 하여 화려한 반면, 제복의 관은 흑색(黑色) 바탕에 전면의 당초문(唐椒紋) 소부분(小部分)과 잠(簪)을 꽂는 둘레에만 니금(泥金)을 하였다(김영숙, 1998).

품계(品階)에 따라 양(梁)의 수를 달리하였는데 태종 16년(1416)에 조관의 관복제도에 따라 1품관은 5량관, 2품관은 4량관, 3품관은 3량관, 4·5·6품은 2량관, 7·8·9품관은 1량관으로 하였는데, 이는 명나라의 칙지에 따라 제복의 등급을 정할 때 중국과 비교하여 2등을 제창하여 적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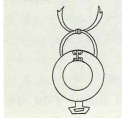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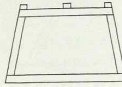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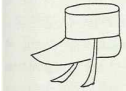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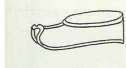
세종 8년(1426)에 제정한 문무관복의 제도에 1품은 5량 각잠(五梁 角簪), 2품은 4량 각잠(四梁 角簪), 3품은 3량 각잠(三梁 角簪), 4·5·6품은 2량 각잠(二梁 角簪), 7, 8, 9품은 1량 각잠(一梁 角簪)으로 조복의 양관과 제복의 관이 동일하였으며, 『국조오례의』 역시 동일하다.

『경국대전』에서는 품계에 따른 양의 수는 같으나 잠의 재료가 각잠(角簪)에서 목잠(木簪)으로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종묘의궤(宗廟儀軌)』 문무관관복(文武官冠服)

구 분	『종묘의궤(宗廟儀軌)』 문무관관복(文武官冠服) 도설(圖說)	
홀(笏)	 <p style="text-align: center;">홀(笏)</p>	홀은 4품 이상은 상아(象牙)를 사용하고, 5품 이하는 나무를 사용하여 만든다. 지금은 품계의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나무 홀을 쓴다.
관(冠)	 <p style="text-align: center;">관(冠)</p>	관은 1품은 5량(五梁), 2품은 4량(四梁), 3품은 3량(三梁), 4품에서 6품까지는 2량(二梁), 7품 이하는 1량(一梁)으로 모두 각잠(角簪)을 쓴다. 지금 제집사(諸執事)가 착용하는 것은 제도가 양관(梁冠)과 같은데, 흑초(黑紬)로 짜고 자황(雌黃)으로 그림을 그리며, 양의 전후 상하에도 자황으로 그림을 그린다. 나무로 잠(簪)을 만들고 잠의 머리에 그림을 그린다.
의(衣)	 <p style="text-align: center;">상의(上衣)의 앞면(衣面) 상의(上衣)의 뒷면(衣背)</p>	상의는 청라(靑羅)로 만든다. 지금은 흑주(黑紬)를 쓴다.
상(裳)	 <p style="text-align: center;">상(裳)</p>	하의는 적라(赤羅)로 만든다. 지금은 홍주(紅紬)를 쓴다.
대대(大帶)	 <p style="text-align: center;">대대(大帶)</p>	대대는 적라와 백라(白羅)를 합쳐서 꿰맨다. 양관(梁冠) 과 패옥을 착용한 자가 이 띠를 찬다.
중단(中單)	 <p style="text-align: center;">중단의 앞면(中單面) 중단의 뒷면(中單背)</p>	중단은 백사(白沙)로 만들고, 옷깃과 가선을 검은색으로 한다. 지금은 백주(白紬)를 쓴다.
패(佩)	 <p style="text-align: center;">패옥(佩)</p>	패는 2개이다. 위에 구리 갈고리(銅鉤)로 형(衡)을 설치하고, 다음에 중형(重衡), 중간에 거(珞)와 우(瑀)를 설치한다. 아래에 충아(衝牙)가 있고, 한 쌍의 황(璜)이 중형의 양쪽 옆에 있으며, 또 한 쌍의 동(同)이 충아의 양쪽 옆에 있어 약옥주(藥玉珠)로 꿰뚫는다. 형, 거, 우, 한 쌍의 황, 충아, 적자(適子)는 모두 민옥(珉玉)으로 한다. 지금은 정1품 헌관(獻官)과 천조관(薦俎官)은 해사(該司)에 준비된 것을 갖추어 차고 다른 집사는 없다.

<표 1> 계속

구 분	『중묘의궤(宗廟儀軌)』 문무관관복(文武官冠服) 도설(圖說)	
수(綬)	 <p style="text-align: center;">수(綬)</p>	<p>수는 2품 이상은 황색(黃色)·녹색(綠色)·적색(赤色)·자색(紫色)의 4색의 실로·3품은 같고, 4품에서 6품까지는 황색·녹색·적색 3색의 실이고, 7품 이하는 황색·녹색 2색의 실이다. 운학(雲鶴) 무늬·3품은 반조(盤鵲)무늬, 4품에서 6품까지는 연작(練鵲)무늬, 7품 이하는 계척(鷓鴣)무늬이다.의 화금(花鋪)을 짜서 이루고, 아래에 청사(靑絲)로 된 망(網)을 연결하여 붙인 다음 한 쌍의 금고리를 단다. 3품에서 4품까지는 은고리(銀環)를 사용하고, 5품 이하는 동고리(銅環)를 사용한다.</p> <p>지금은 정1품 헌관(獻官)과 천조관(薦俎官)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 헌관과 제집사가 착용하는 것은 홍주(紅紬)를 사용하고 품계에 따라 그림으로 그린다.</p>
방심곡령(方心曲領)	 <p style="text-align: center;">방심곡령(方心曲領)</p>	<p>방심곡령은 백초(白紵)로 만든다.</p> <p>지금은 백주(白紬)를 사용한다.</p>
폐슬(蔽膝)	 <p style="text-align: center;">폐슬(蔽膝)</p>	<p>폐슬은 적라(赤羅)로 만든다.</p> <p>지금은 홍주(紅紬)를 사용한다.</p>
혁대(革帶)	 <p style="text-align: center;">혁대(革帶)</p>	<p>혁대는 2품 이상은 금을 사용하고, 3품에서 4품까지는 은을 사용하고, 5품 이하는 동을 사용한다.</p>
말(襪)	 <p style="text-align: center;">말(襪)</p>	<p>버선은 백포(白布)로 만든다.</p>
이(履)	 <p style="text-align: center;">이(履)</p>	<p>신은 흑피(黑皮)로 만든다.</p>

임진왜란 이후에 편찬된 『제기악기도감의궤』에는 양관에 흑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묘의궤』에는 흑초(黑紵)로 짜고 자황(雌黃)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사직서의궤』에는 관 전체에 황벽을 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영·정조대에 조복과 제복의 관을 통용하도록 하면서 제복의 관에 흑칠하는 것을 금하였으나,

조복의 양관은 도금을 하고 제복의 양관은 옷칠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예전』의 기록과 국말의 유물을 통해 제복의 관이 흑칠관으로 다시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의(衣)

의는 제복 중 가장 상의로 중단(中單) 위에

입는 포이다.

태종 8년(1408)에 명에서 왕세자에게 내린 제복에는 청라의의가 포함되어 있고, 세종 8년(1426)의 문무관 배제복(陪祭服)에는 1품에서 9품까지 모두 검정색으로 깃에 선을 두른 청색 나의(羅衣)를 착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종실록 오례』에는 청라의(靑羅衣), 『경국대전』에는 청초의(靑綃衣), 『국조오례의』에는 청라의(靑羅衣)로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선 초기에는 의의 색상이 청색이었고, 직물은 라(羅)나 초(綃)등의 고급직물이었는데, 임진왜란 이후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제기악기도감의궤』에서는 의의 명칭을 처음으로 흑삼(黑衫)으로 표기하였고, 직물은 『종묘의궤』와 동일하게 흑주(黑紬)로 되어 있다.

『경모궁의궤』의 사관제복(祀官祭服)에는 흑라의(黑羅衣), 종친문무배향관관복(宗親文武陪享官冠服)에는 흑초연(黑綃緣)의 홍초의(紅綃衣)로, 『태학지』에는 청라의(靑羅衣)로 되어 있다.

『대한예전』에는 흑연(黑緣)의 흑라의(黑羅衣)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말의 유물에서도 흑라(黑羅)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의의 색상과 직물에는 조선시대 내내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상(裳)

상은 제복 착용 시 중단(中單) 위에 둘러 입는 것으로 앞판(전상 前裳)과 뒤판(후상 後裳)을 따로 만들어 하나의 허리말기에 이어 붙인 형태이다. 앞판은 양(陽)을 상징하는 홀수인 3폭으로, 뒤판은 음(陰)을 상징하는 짝수인 4폭으로 구성하였으며, 붉은 색 상의 가장자리에 검은 선을 둘러고 각 품 모두 착용하였다(김영숙, 1998).

태종 8년(1408) 명에서 왕세자에게 내린 제복에 적라상(赤羅裳)이 있으며, 세종 8년(1426)의 문무관 배제복에는 검정선을 두른 적색 나상(羅裳)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실록 오례』에는 검은 단(緣)을 한 적라상(赤羅裳 阜緣), 『경국대전』에는 적초상(赤綃裳), 『국조오례의』에는 적라상(赤羅裳), 『태학지』에는 적라상(赤羅裳), 『대한예전』에는 몸판과 같은 색으로 선을 댄 적색 라로 상을 만

든다(赤羅裳 同色緣)고 되어 있다.

국말에는 관복의 간소화 경향으로 상의 앞 뒤 부분을 따로 제작하여 중단에 붙이거나 보이는 부분만을 제작하여 의에 붙인 경우도 있다.

『종묘의궤』에서는 상의 의차 역시 주(紬)로 되어 있는데 라(羅)나 초(綃)등의 고급직물보다는 손질과 세탁이 용이한 주(紬)를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된다.

5) 대대(大帶)

대대는 제복 차림을 할 때 허리에 두르는 비단 띠로 큰 띠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허리에 두르는 부분인 요(纜)와 아래로 늘어뜨리는 신(紳)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자리에는 선(縵)이 둘러져 있다. 양 옆에 달린 끈을 배 앞쪽에서 묶어 고정한다(김영숙, 1998).

세종 8년(1426)의 문무관 조복의 대대는 적색과 흰색으로 두 가지 색깔의 견(絹)을 쓰는데(赤白綃大帶), 배제복의 관대(冠帶)는 조복과 같다고 되어 있다.

『세종실록 오례』에는 적백의 대대(赤白大帶), 『국조오례의』에는 대대이적백라합이봉지(大帶以赤白羅合以縫之), 『경모궁의궤』의 사관제복에는 적백라대대(赤白羅大帶), 종친문무배향관관복에는 오색사직성조대(五色絲織成條帶), 『태학지』에는 대대이적백합이봉지(大帶以赤白合以縫之)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예전』에는 적색과 백색 띠를 합쳐서 꿰맨다(大帶以赤白羅合而縫之)고 되어 있다.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대대의 제도는 거의 변함이 없으며 직물의 의차는 라(羅)나 견(絹)의 고급 직물이었다. 『종묘의궤』 역시 『국조오례의』의 제도를 따라 적백라(赤白羅)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종묘의궤』에 ‘양관과 패옥을 착용한 자가 이 띠를 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정1품 헌관(獻官)과 천조관(薦俎官)을 말하는 것으로 패옥 역시 이들만 착용하고, 수(綬)는 정1품 헌관과 천조관은 직성을 하고 나머지 제관들은 홍주(紅紬)에 품계에 따라 그림을 그려 착용하도록 되어있다. 대대는 주(紬)가 아닌 라(羅)를 사용하

였기 때문에 착용자를 제한한 것으로 사료된다.

6) 중단(中單)

중단은 제복을 입을 때 속에 받쳐 입는 소매가 넓은 포(袍)로 제복의 의 아래에 착용하였다. 홉으로 만들어(단의 單衣) 겉옷과 속옷 사이에 입는 옷(중의 中衣)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김영숙. 1998).

태종 8년(1408) 명에서 왕세자에게 내린 제복 중 백사중단(白紗中單)이 있고, 태종 16년(1416)에 제정한 관복 제도에는 백사중단(白紗中單), 세종 8년(1426)의 문무관 배제복에는 깃에 검정색 선을 두른 백사중단(白紗中單)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실록 오례』에는 검은 깃과 단의 백사중단(白紗中單 皂領緣), 『경국대전』에는 백초중단(白縞中單)으로 규정하고 있다.

『태학지』에는 조영연(皂領緣)의 백초중단(白縞中單), 『대한예전』에는 백색 사의 중단(白紗中單)을 착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종묘의궤』의 중단의 의차는 사(紗)나 초(縞)가 아닌 주(紬)로 되어 있다.

7) 패(佩)

패는 제복 차림을 할 때 양 옆에 드리우는 장식품으로 바탕인 소수(小綬) 위에 여러 형태의 얇은 옥을 연결하여 만드는 것으로 품대에 걸기 위한 고리(구 鉤)가 달려 있다. 걸을 때 옥이 서로 부딪혀 나는 소리는 군자의 덕을 상징하여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경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패옥이 서로 엉키지 않도록 청색 비단 주머니에 넣어 사용하였다(김영숙. 1998).

태종 16년(1416)에 제정한 조관의 관복 제도와 『세종실록 오례』에는 1, 2 품은 옥(玉)으로, 3품 이하는 약옥(藥玉)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국대전』은 3품 이상은 번청옥(燐靑玉)으로, 4품 이하는 번백옥(燐白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예전』도 이와 동일하다.

『종묘의궤』에서는 ‘정1품 헌관과 천조관은 해사에 준비된 것을 갖추어 차고 다른 집사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수(綬)

수는 제복 차림을 할 때 허리 뒤쪽으로 드리우는 장식물로서 품계를 나타내는 표식 중의 하나이며, 뒤에 늘어뜨린다고 하여 후수(後綬)라 칭했다(김영숙. 1998).

장방형의 천을 색실로 짜서 위쪽에 고리를 달고 아래에는 청사망(靑絲網)을 맺는데, 품계에 따라 색실의 수와 문양, 고리의 재료가 다르다.

『경국대전』과 『국조오례의』, 『조선왕조실록』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 제도는 고종대까지 동일한데, 국말에는 대대와 연결하여 의 위에 착용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종묘의궤』에서는 ‘정1품 헌관과 천조관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 헌관과 제집사가 착용하는 것은 홍주를 사용하고 품계에 따라 그림으로 그린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 방심곡령(方心曲領)

방심곡령은 제복의 의(衣)의 깃 위에 두르는 둥근 고리 모양의 흰 천으로, 하단에 네모난 방심을 단다(김영숙. 1998).

『경국대전』과 『국조오례의』, 『태학지』 모두 백초로 된 방심곡령을 1품에서 9품까지의 모든 문무백관들이 제복을 입을 때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묘의궤』에서는 방심곡령의 직물을 초(縞)가 아닌 주(紬)로 규정하고 있다.

10) 폐슬(蔽膝)

폐슬은 제복 차림을 할 때 무릎에 드리우는 장식으로 무릎(슬 膝)을 가린다(폐 蔽)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원래의 제도는 직사각형의 직물을 현대에 걸어 착용하였으나, 17세기 이후 유물은 끈에 꿰어 허리에 두르는 것으로 확인되며, 고종대에 이르러서는 의(衣)의 가슴 부분에 폐슬 대신 작은 직사각형 직물을 달아 폐흉(蔽胸)이라고 하였다(김영숙. 1998).

『세종실록 오례』에는 적백의 적라폐슬(赤白 赤羅蔽膝), 『경국대전』에는 적초폐슬(赤縞蔽膝), 『국조오례의』에는 적라폐슬(赤羅蔽膝),

『대한예전』에는 적라폐슬(赤羅蔽膝)로 규정하고 있으며, 1품부터 모든 각 품이 동일하게 두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종묘의궤』에는 폐슬의 의차가 주(紬)로 되어 있으며, 상의 색상과 동일한 홍주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11) 혁대(革帶)

혁대는 제복 차림을 할 때 허리에 띠는 대로 관직의 품계를 나타내는데, 지위와 옷에 따라 색 또는 재료 등을 구분하여 품대(品帶)라고도 한다(김영숙, 1998).

가죽으로 띠를 만들어 청색 비단을 씌우고 그 위에 과판(鈔板)을 붙여 장식하는데, 과판의 종류는 『국조오례의』에는 1·2품은 금, 3·4품은 은, 5품 이하는 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국대전』에서는 1품은 서대(犀帶), 정2품은 삽금(鍍金), 종2품은 소금(素金), 정3품은 삽은(鍍銀), 종3품은 소은(素銀), 4품은 소은(素銀), 5, 6품은 흑각(黑角), 7,8,9품은 흑각(黑角)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대가 예의용이라면, 품대는 후수와 폐슬을 거는 실용적인 역할은 하였으며 착장 시에는 대대 위에 두른다.

『종묘의궤』의 혁대는 『국조오례의』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12) 말(襪)

제복 차림을 할 때 신는 버선을 한자어로 말(襪)이라고 한다(김영숙, 1998).

말의 직물은 『경국대전』과 『국조오례의』, 『대한예전』에 이르기까지 백포(白布)로 동일하고 전 품이 신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회복 옆이나 부리 뒤쪽에 끈을 달아 고정하기도 한다.

『종묘의궤』의 말의 의차 역시 라(羅)나 초(綃), 사(紗) 보다는 세탁과 관리가 용이한 백포로 규정하고 있다.

13) 이(履)

이는 제복 차림을 할 때 신는 신발로 신의 목이 짧고 재료는 흑색 가죽(흑피 黑皮)으로 하여

흑피리(黑皮履)라고 한다(김영숙, 1998).

『세종실록 오례』에는 흑리(黑履), 『국조오례의』와 『태학지』에는 흑피리(黑皮履), 『경국대전』에는 흑피혜(黑皮鞋)로 규정하고 있다.

중종 3년 9월 14일에 박원종(朴元宗)이 중국의 북경에 다녀오면서 조복과 제복에 신는 화(靴)를 얻었는데, 조선의 혜말(鞋襪)은 누추하고 중국의 화(靴)는 매우 정결하니 중국의 제도를 따르자는 논의를 하였는데, 이틀 후인 9월 16일에 조복과 제복의 혜말을 변경하는 일은 기한을 멀리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제기악기도감의궤』에서는 운혜(雲鞋), 『경모궁의궤』와 『종묘의궤』에는 흑피리(黑皮履)로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종묘의궤』의 문무관관복의 제도를 살펴보았는데, 남악제 제례복식으로 숙종대의 제복을 고증함에 있어 이상의 제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바른 복원의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정온(鄭蘊)의 제복과 조복 유물의 고찰

조선시대 문무관원들의 제복은 여러 예서와 의궤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대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역시 알 수 있다. 백관의 조복과 제복이 동시에 제정된 『경국대전』에서는 조복의 적초의 대신에 청초의를 입고 그 위에 방심곡령을 두르면 제복이 된다. 즉, 조복과 제복은 의의 색상과 방심곡령의 유무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속제구들은 모두 통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조복은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의 예복 가운데에서 가장 화려하고 정결한 정장(正裝)으로 경사스럽고 좋은 대사(大事)·동지(冬至)·정조(正朝)·성절(聖節)·영조(迎詔)·반강교서(頒降敎書)·탄일배표(誕日拜表) 등의 의식에 착용하였다. 조복 차림을 할 때 쓰는 금칠한 양관으로 인해 ‘금관조복(金冠朝服)’이라 부르기도 하며, 붉은 색 의와 상이 기본이고 양관, 중단, 폐슬, 수, 패, 대, 화, 말, 홀과 함께 일습을 갖추어 제복과 일습 구성이 같다(김영숙, 1998). 차이점은 조복은



<그림 1> 정온의 제복
(출처: 문화재청 <http://www.cha.go.kr/>)



<그림 2> 정온의 조복
(출처: 문화재청 <http://www.cha.go.kr/>)



<그림 3> 정온의 상
(출처: 문화재청 <http://www.cha.go.kr/>)



<그림 4> 정온의 중단
(출처: 문화재청 <http://www.cha.go.kr/>)



<그림 5> 정온의 금관
(출처: 문화재청 <http://www.cha.go.kr/>)

의가 적색이고 중단이 청색이며 양관에 금니를 한 반면, 제복은 의가 청색, 혹은 흑색이고 중단이 백색이며 양관에 흑실을 하고 방심곡령을 두른다는 점이다. 이외의 나머지 부속 제구들은 조복과 제복 모두 통용되었으며 착용법 또한 동일하다(국립고궁박물관, 2013).

본 장에서는 현전하는 제복 유물 중 연대가 가장 앞서며 시기 상으로도 숙종대와 가장 근접한 중요민속자료 제218호인 정온가(鄭蘊家)의 유품(遺品) 중 제복, 조복, 상, 중단, 금관 5점의 유물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계(桐溪) 정온(鄭蘊)은 1569년에 경남 거창군에서 출생하였으며 광해군 2년(1610)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 대사간, 대제학, 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으며 1641년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숙종 때 영의정으로서 추증되었다(문화재청, <http://www.cha.go.kr/>).

제복은 의로 조선 후기의 제복이 거의 검은색,

즉 현색(玄色)인 것과는 다르게 짙은 청색인 아청색(鴉青色) 항라(尙羅)로 만들어졌으며, 길이 87cm, 화장 95cm, 뒤폭 42cm, 소매너비 47.5cm로 조선 후기의 유물들과 비교하였을 때 소매통은 다소 좁은 편이고 화장은 상당히 길다. 단령 깃 모양의 방심곡령이 직령 깃 위에 부착되어 있고, 수구, 도련, 섯, 길 옆선을 마무리할 때 제물단으로 처리하여 안쪽에서 공그르기를 하였다. 후대로 내려올수록 제복의 소매 형태는 직선에 가깝게 되고 소매의 나비는 넓어지며 길이는 짧아지는 변화를 보이게 된다(최영선, 2004).

조복 역시 의로 적색 초(納)로 만들었으며 깃, 도련, 소매 끝에 검은색 선을 둘렀는데, 검은색 선 안쪽에는 가는 흰색선이 끼워져 있다. 길이 82cm, 폭 46.5cm, 화장 87cm, 소매통 49cm, 단너비 7cm이다. 조선 후기의 소매는 진동 밑이 거의 직선에 가까운데 이 적초의는 겨드랑이 아래쪽이 둥근 형태인 두리소매이다. 옷고름도 조선후

기와 달리 검정 색으로 되어 있다(고복남, 1987).

상은 적색 초(紵)로 만들었으며 전삼후사(前三後四)의 기준에 따라 전폭 32cm, 뒤폭 36cm로 앞이 좁고 뒤가 더 넓다. 길이는 76cm, 허리길이 75cm, 너비 9.5cm이다. 가장자리에 검은색 선을 두르고 흰색선을 넣었는데 검정선 위까지 잔주름이 계속 잡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위에서 밑단 끝까지 잡혀있는 주름은 18세기까지 계속된 모습이며 비교적 당시의 제도를 잘 따르고 있다(고복남, 1987).

중단은 청색 초(紵)로 만들었으며 길이 120cm, 품 42cm, 화장 93cm이고 가장자리는 검은색 선을 둘렀다. 양옆이 조금 트여 있고 조선 후기의 것보다 소매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는 둥근 두리소매이고 옷의 너비도 조선 후기의 것보다 넓은 편이다(고복남, 1987).

금관은 1품 관리가 쓰는 5량관인데 원통형으로 머리 둘레와 뒷면 전체에 금칠이 되어 있어 화려하고 윗부분은 검은 비단으로 싸여져 있다. 뒷면은 금칠한 나무비녀 두 개를 꽂아 고정하였고 비녀 양 끝에는 술을 달았다. 이 금관은 조선 후기의 것과 형태는 같으나 댓개비로 장식된 세부가 상당히 정교하며 뒷면의 조각장식도 현존하는 다른 금관에 비하여 뛰어나게 정교하다(고복남, 1987).

3. 밀창군(密昌君) 이직(李穡)의 조복 초상화와 조복 유물의 고찰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 본 정온의 유물보다는 연대가 늦지만 숙종, 경종, 영조 삼대 임금을 섬긴 밀창군 이직의 조복 차림 초상화와 그의 조복 출토 유물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조복 유물이긴 하지만 앞서 전술한 것처럼 제복과 조복이 제도상 그 일습 제구 대부분이 수용되었으므로 이직의 조복 초상화와 유물은 남악제의 제복을 숙종대로 고증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밀창군 이직의 조복 초상화

밀창군 이직은 선조의 7남인 인성군의 증손자로 1677년에 태어나 1746에 향년 70세로 세

상을 떠났다. 숙종, 경종, 영조 삼대 임금을 섬겼는데 특히 영조의 충애를 받아 3차례 중국을 다녀왔으며 48세에 홍록대부(정1품)에 올랐고, 영조가 부의를 내리고 효정려(孝旌閔)를 내린 인물이다(단대출판부, 2004).



<그림 6>
밀창군(密昌君) 이직(李穡)의 조복 초상화
(출처: 한국복식 제 22호. p.118)

<그림 6>은 1품의 조복을 착용하고 있는 밀창군의 초상화로 5량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대대를 의 위에 위에 착용하고 있는데 제도상으로는 적색과 백색의 라를 합하여 꿰맨 것이어야 하나 그림에서는 녹색과 백색으로 된 대대를 두르고 있으며 그 위에 패슬을 둘렀고 그 위에 다시 조대(條帶)를 두른 것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조복과 제복의 일습 구성에 조대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특이한 점으로 보인다.

패슬 아래로는 주름이 잡혀져 있는 상이 길게 내려와 있고, 의의 양 옆 트인 부분으로 청색의 중단이 보이며 양쪽 옆에 패옥을 착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초상화에서는 흑피화를 신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경모궁의궤』에서 흑피화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며, 종종 3년에 중국에서 얻어 온 화로 조복과 제복의 해말을 변경하는 논의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손에는 기다란 홀을 들고 있는데 상홀인 것으로 보인다(장정운, 2003).

위 초상화를 통해 당시의 제복 착용법을 정리해보면 기본적으로 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그 위

에 편복이나 창 의 혹은 도포 등의 포를 입을 후에 제복 일습을 착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순서는 ①중단→ ②상→ ③의→ ④후수(의 안으로 맴)→ ⑤대대(의 밖으로 맴, 대대 위에 조대를 두름)→ ⑥폐슬→ ⑦혁대→ ⑧폐→ ⑨방심곡령→ ⑩말→ ⑪이→ ⑫관→ ⑬홀이다(최영선, 2004).

위의 초상화에서 청색의 중단 대신 백색의 중단을 착용하고, 그 위에 흑색의 의를 입을 후에 방심곡령을 두르고, 신으로는 흑피리를 신고, 흑초로 싸고 양의 전후상하에 자황으로 그림을 그린 관을 쓰는 것으로 대치한다면 숙종 당시의 문무관원이 제례 시 착용한 제복의 일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 밀창군 이직의 조복 유물

본 장에서는 1999년 12월 21일에 서울 상암동의 전주 이씨 밀창군의 묘에서 출토된 조복 유물로 의, 상, 폐슬, 후수, 대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의는 가선된 부분이 다소 넓은 편이며 겨드랑이 부분이 네모형이 아닌 일자형으로 달려 있다. 겹으로 되어 있는데 걸감은 은조사(銀條紗)이며, 안감은 매우 얇은 세주(細紬)를 사용하였다. 흑색으로 추정되는 연(緣)이 둘러 있으며 연에는 백색의 선이 첨가되어 있다. 뒷길이는 98.5cm, 품(B/4)은 29cm, 화장은 119cm, 진동은 25cm, 고대는 20cm, 소매넓이는 74.5cm, 연의 넓이는 11~12cm이다(단대출판부, 2004). 당코깃이 넓게 달려 있고 고름의 길이는 국말의 조복 유물과 비교했을 때 짧고 좁은 편이나 앞서 살펴본 정온의 유물과 비교해보면 총길이와 화장, 소매 넓이가 모두 길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총길이가 길어지고 소매 나비가 넓어지는 현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상은 전삼후사의 규정대로 제작되었고, 연을 가한 후에 주름을 잡았는데 밑단에 가선된 부분까지 주름이 잡혀 있고, 의와 같은 연이 둘러져 있다. 홀으로 되어 있는데, 소재는 의와 같은 은조사이다. 가로 99cm, 세로 89cm, 끈 길이 79cm, 끈 너비 4.8cm이다(단대출판부, 2004). 앞서 살

펴 본 정온의 유물과 비교해보면 가로, 세로의 길이가 모두 길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폐슬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겹으로 되어 있고 소재는 은조사이다. 가로의 길이가 28.5cm, 세로의 길이가 67cm이며 상단 양쪽에 1cm 넓이의 고리가 달려 있다(단대출판부, 2004).

후수는 공단(貢緞)을 소재로 하여 겹으로 되어 있으며 두 쌍의 운학을 수놓은 것이 특징이다. 색이 변한 농도가 달라 상·하단의 학의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하단의 학은 백색으로 추정된다. 학 이외의 다른 부분에 약간의 청색이 남아 있고, 말기와 끈이 연결되어 달려 있다. 후수의 가로의 길이는 32cm, 세로 길이는 56.8cm, 말기 넓이는 6.5cm, 끈 길이는 88cm, 끈의 너비는 5cm이다. 다른 유물들과 제대로 미루어 보아 홍색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단대출판부, 2004).

대대는 겹으로 되어 있는데 걸감의 소재는 석류문단(桃榴紋緞)이고, 안감은 여지불수단(荔枝佛手緞)으로 되어 있다. 색상은 백색과 흑연(黑緣)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양 끝에 비단 끈을 달아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유물에서는 대대와 후수가 분리되어 있는데, 국말의 유물 중에서 대대와 후수가 붙어 있는 것도 있다. 가로의 길이가 111.5cm, 세로의 길이 78cm, 대대의 넓이는 9.5cm, 양 쪽 끝에 달려 있는 가는 비단 끈의 길이는 9.5cm이고 끈 너비는 1cm이다(장정윤,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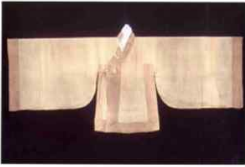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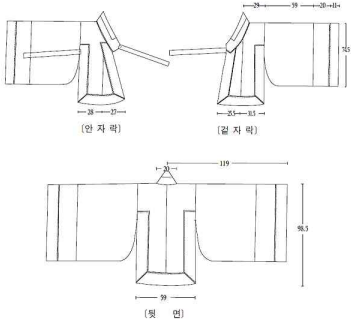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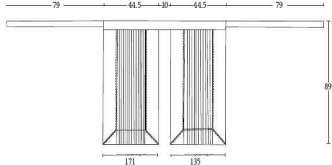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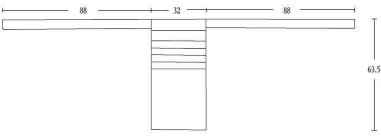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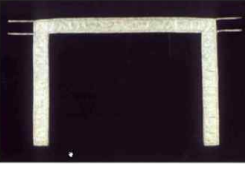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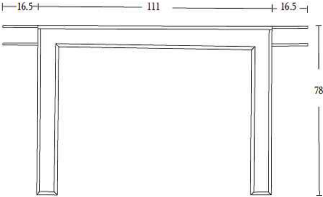
밀창군 이직의 조복 유물의 사진과 도식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단대출판부, 2004).

밀창군 이직의 유물이 국말의 전래 유물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의를 겹으로 하였다는 점과 상의 주름이 밑단까지 잡혀 있는 것, 그리고 폐슬이 넓고 길며 상단 좌우로 고리가 달려 있어 4색으로 직성된 조대(정 1, 2품용)를 끼우도록 되어 있는 점이다.

IV. 지리산 남악제 제례 복식 복원에 관한 제언

남악사를 대대적으로 중건하여 지리산신의 제

〈표 2〉 밀창군(密昌君) 이직(李穡)의 조복(朝服) 유물

유물	사진	도식화
의 (衣)		
상 (裳)		
폐슬 (蔽膝)		
후수 (後綬)		
대대 (大帶)		

사처로 그 지위와 전통을 공고히 한 숙종대로 남악제의 제례 복식을 복원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로 숙종 32년(1706)에 편찬된 『중묘의궤』 제 1책의 제복 도설 중 문무관관복을 통해 숙종대의 문무관원이 제례 시에 착용한

제복의 제도를 살펴 보았고, 유물 고찰로는 정운의 제복과 조복 유물, 밀창군 이직의 조복 차림 초상화와 그의 조복 출토 유물을 고찰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남악제 제례 복식을 다음과 같이 복원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홀은 『종묘의궤』의 도설과 이직 초상화의 홀의 형태를 참고하도록 하고, 홀의 재료는 목홀로 모든 제관이 사용하도록 한다.

관의 형태는 『종묘의궤』의 도설과 정온의 금관 유물, 이직 초상화의 금관을 참고하되 그 구체적인 형태는 도설에 나와 있는대로 흑초로 싸고 양의 전후 상하에 자황으로 그림을 그리며, 목잡의 머리에 그림을 그리는데 품계에 따라 1품은 5량, 2품은 4량, 3품은 3량, 4품에서 6품까지는 2량, 7품 이하는 1량의 관으로 제작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의는 『종묘의궤』의 도설, 정온의 제복과 조복 유물, 이직의 조복 초상화와 유물에 나타난 형태와 실제 치수를 참고하여 제작하되 의차는 홍주로 하고 소매의 형태는 겨드랑이 아래쪽이 둥근 형인 두리소매로 한다. 총길이는 90cm 내외, 소매의 나비는 50cm 내외, 화장은 100cm 내외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은 『종묘의궤』의 도설, 정온과 이직의 유물의 형태와 실제 치수를 참고하여 제작하되 의차는 홍주로 하고 전삼후사의 규정대로 허리 말기에 앞뒤 폭이 다른 치마 2개를 붙인 형태로 제작한다. 주름은 위에서 밑단까지 잡아서 제작하고 세로의 길이는 의의 총길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85cm 내외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대와 패, 수는 『종묘의궤』의 도설과 이직의 유물을 참고할 수 있는데, 대대는 적라와 백라를 합쳐서 꿰매고 정1품 헌관과 천조관만 두르도록 한다. 패와 직성한 수 역시 이들만 착용하는데, 패는 민옥으로 제작하고, 수의 색상과 문양은 품계에 따른 제도를 따르도록 한다. 다른 나머지 헌관과 제집사는 패를 두르지 않고, 수 역시 홍주를 사용하는데 품계에 따라 그림을 그려서 착용하도록 한다.

중단은 『종묘의궤』의 도설과 정온의 중단 유물을 참고하되 중단의 곁에 입는 의의 길이와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도록 한다. 의차는 백주로 하고 옷깃과 가선을 검은색으로 하며 소매의 형태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둥근 두리소매로 한다.

방심곡령은 『종묘의궤』의 도설과 정온의 유물을 참고하여 제작하는데 의차는 백주로 한다. 정온의 유물과 국말의 유물에는 방심곡령이

깃에 부착되어 있으나 『종묘의궤』의 제도에 따라 방심곡령을 따로 제작하여 깃 위에 두르도록 한다.

폐슬은 『종묘의궤』의 도설과 이직의 초상화와 유물을 참고하여 좌우상하 모두 선단을 두른 사다리꼴 형태로 제작하되 의차는 홍주로 한다. 현전하는 국말의 유물 대부분은 의에 부착된 상태이거나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종묘의궤』의 제도와 유물을 근거로 하여 의와 분리하고 폐슬의 고리를 끈고리로 하여 현대에 끼워 착용하도록 한다.

혁대는 『종묘의궤』의 도설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도에 따라 2품 이상은 금을, 3품에서 4품까지는 은을, 5품 이하는 동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말은 백포로, 이는 흑피로 제작하여 착용한다.

V. 결론

신라시대부터 국가가 주관하는 제사로 뿌리 깊은 전통을 지니고 있는 남악제는 우리의 전통 문화계승과 민족의 주체성 회복 차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에 제례 시 어떠한 복식을 착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악사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일신한 숙종대로 남악제례의 복식을 복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으며 숙종대의 제복을 고찰하기 위해 문헌 연구로는 숙종 32년(1706)에 편찬된 『종묘의궤』 제 1책의 제복 도설 중 문무관관복을 살펴 보았고, 유물 연구로는 정온의 제복과 조복 유물, 밀창군 이직의 조복 차림 초상화와 그의 조복 출토 유물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문헌과 유물 연구를 통해 숙종대 제복을 고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남악제 제례복식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를 제언하였다.

이상으로 정리된 숙종대의 제례 복식에 관한 고증 결과가 남악제의 제례복식을 복원하는데 잘 활용되어 남악제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더 나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그 위상을 더욱 높여 나아가길 기원한다.

또한 여러 지역의 축제에서 전통 의례를 재현하는 행사가 중요한 문화 콘텐츠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에 본 연구가 전통복식의 고증과 재현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 활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복남. (1987). *중요민속자료지정조사보고서-정온의 제복 등 3건*. 문화재관리국.
- 구례군, 구례 문화원. (2013). *지리산 남악제의 전승과 축제 연구*. 서울: 월인.
- 국립고궁박물관. (2013). *왕실문화도감: 조선왕실복식*. 서울: 디자인인트로.
- 김아네스, 김기주, 김봉곤, 김지영, 문동규. (2013). *지리산의 종교와 문화*. 서울: 보고서.
- 김영숙. (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도서출판 미술문화.
- 단대출판부. (2004). *한국복식 제 22호*. 서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심연옥. (2013). 조선전기 직금홍배직물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5(4), 113-128.
- 안인희. (2014). 조선시대 혼인의례와 혼례복에 관한 스토리텔링 원천자료 분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6(1), 139-151.
- 이은주, 이경희. (2014). 1899년 삼척 준경묘와 영경묘 봉심에 참여한 관직자 복식 고증. *한복문화*, 17(1), 73-88.
- 장인우. (2013). 한산이씨 문직물저고리에 나타난 문양과 직물구성 -단(緞)과 사(紗)를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5(4), 143-155.
- 장정윤. (2003). *조선시대 문무백관 조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영선. (2004). *조선시대 문무백관 제복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석사학위논문.
- 한국고전번역원. (2009). *종묘의궤(선종순 율김)*. 경기도: 김영사.
- 정온가의 유품. (2014. 07. 08). 문화재청 <http://www.cha.go.kr/>
- 정온가의 유품. (2014. 07.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 『經國大典』
- 『景慕宮儀軌』
- 『國朝五禮儀』
- 『大韓禮典』
- 『社稷署儀軌』
- 『朝鮮王朝實錄』
- 『宗廟儀軌』
- 『祭器樂器都監儀軌』
- 『太學志』